

Culture Information

: 미디어 속 직업병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기택(송강호 분)은 만년백수에서 벗어나 동익(이선균 분)의 운전기사로 취직한다. 기택은 침수 피해로 대피소에서 쪽잠을 잔 다음날에도 동익의 전화 한 통에 출근을 해야 하는 고된 삶을 산다. 기택처럼 오랜 시간 앉아서 차를 모는 운전기사는 소변을 무리하게 참는 경우가 잦아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글 편집실

화장실 갈 시간 없는 운전기사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

영화 <기생충(2019)>을 통해 본
방광염



운전기사로 일하는 <기생충> 주인공, 방광염 조심해야

영화 <기생충>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외신들은 앞다퉀 <기생충>이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며 극찬했다.

기택 집안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부잣집인 동익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빈부격차, 자본주의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지만 초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희극에 가깝다. 기우를 시작으로 기택 가족은 출신을 속이고 과외교사, 운전기사, 가정부로 차례차례 취직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은 예측불허의 사건을 낳는다. 영화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생충> 속 캐릭터는 재력가와 빈민으로 계급이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같은 차 안에 있어도 운전기사인 기택과 동익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 기택은 언제든지 쉽게 해고당할 수 있는 운전기사일 뿐이고, 동익이 부르면 휴일에도 달려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기택처럼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운전기사의 대표적인 직업병은 방광염이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소변을 오래 참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평소 하복부 통증이 자주 일어나거나 빈뇨, 잔뇨, 야간뇨 등의 소변장애가 있다면, 방광염을 의심해야 한다.

호전 빠른 급성 방광염, 만성질환이라면 병원 방문 필수

방광염은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 안으로 침입하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방광 내에만 국한돼 생기기 때문에 온 몸에 열이 나는 등 전신 증상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배뇨 시 통증이 느껴지면서 소변에서 평소보다 불쾌한 냄새가 많

이 올라온다.

소변색이 혼탁해지기도 하며 잔뇨감(소변을 덜 본 듯한 느낌), 과민성 방광(강하고 갑작스런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증상) 등이 생긴다. 질환이 악화될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져서 나오기도 한다.

방광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방광염은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만성 방광염은 가벼운 증상들이 오랜 시간 환자를 힘들게 한다.

급성·만성 방광염의 치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급성 방광염은 평균 3일 동안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된다. 반면 만성 방광염은 오랜 기간의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방광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시작됐다면 참고 지내기보다 빠른 시일 안에 내원해 질환의 유발 요인을 찾아서 교정해야겠다. 🐾

방광염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 ☐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 ☐ 밤에 잠을 자다가 요의 때문에 2번 이상 깬다.
- ☐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 ☐ 소변 색깔이 탁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
- ☐ 소변을 볼 때 하복부에 콕콕 쑺는 통증이 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방광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가 소변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TIP

방광염 이렇게 예방해요!

-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배출한다.
- 방광을 자극하는 알코올, 카페인, 탄산음료는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편이 좋다.
-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요실금과 같은 배뇨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